

2011년도 계육산업 결산

## 2011년 사료산업(육계) 결산



김진형 전무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지난 한 해는 FMD와 AI로 인해 한국 축산업 자체의 지축을 뒤흔들어 놓는 듯한 심각한 국면으로 연초를 시작하면서 좌충우돌, 동분서주하면서 그야말로 계털라전 같은 양상으로 전국으로 그 전쟁이 확대되어 갔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축산인들은 혹독한 한 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과 싸워 이겨냈다. 특히 FMD와는 달리 AI는 그나마 국지전에서 신속하게 최소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큰 다행이었다고 생각된다. 역시 우리 양계인 모두는 강한 응집력과 팀웍, 생명력을 가진 축산업계의 선두 주자임을 확인하면서 지난 1년 결산을 해 보고자 한다.

### 1. 육계사료 부문의 3대 핫 이슈

#### 가. 2011년 육계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시행(7월 1일)

지난 7월부터는 사료 내 항생제 사용금지가 전격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다른 생산성지수(PI) 300 이상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업계 모두의 준비와 노력으로 항생제 대체제의 활발한 연구와 첨가, 육계의 면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의 첨가, 고 영양의 고른 섭취 증진, 농장에서의 환경, 질병, 위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한 결과 무항생제 육계사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이 올 한 해 육계 사료부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아닐까?

이는 한국 육계산업의 생산 기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무항생제, 위생적이고 잘 자라서 맛있는 닭의 일본, 미국, 중국에 수출 길도 한층 가까워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

**나. 인류에게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 : 육계**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인류의 미래 먹거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육계가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수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쏟아진 한 해였다. 우리 양계인들에게는 이

런 보고서들은 아무리 많이 홍보가 되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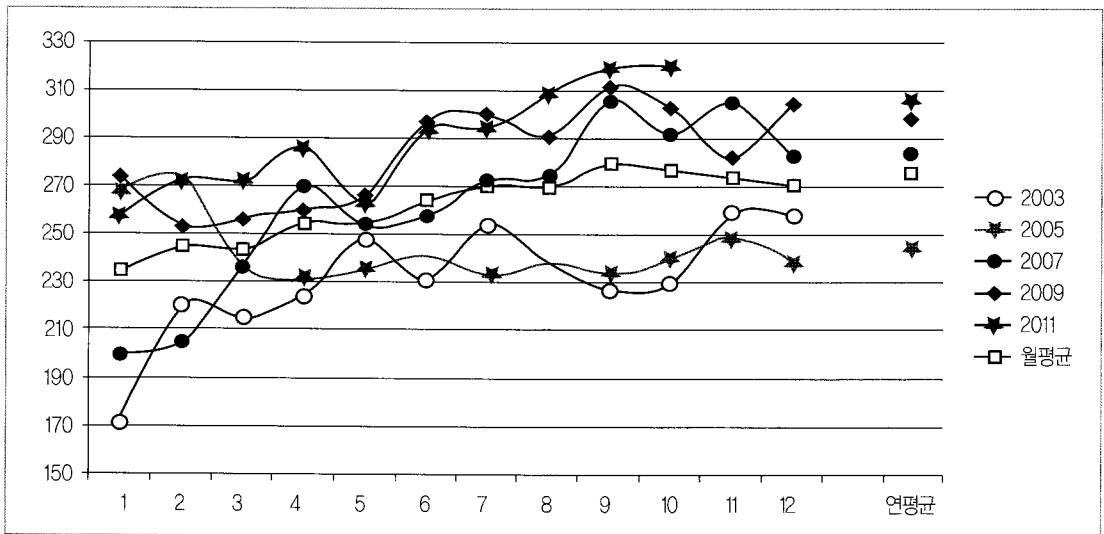
이 기분 좋은 소식은 2050년 인류의 수가 100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우리 육계산업이 가장 크게 도맡아야 할 역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축종보다도 식물성 원료로 동물성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육계산업인 것이기에 전 인류가 큰 관심을 가지고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 육계 생산성 매년 향상 : 금년 최고의 신 기록**

이에 따른 육계의 품종개량과 사양관리 기

〈표 1〉 월별, 연도별 육계 생산성 변화 : PI



※출처 : 가길에그리퓨리나 브로닛사업부(5년 16,564,235수 / 2011년 10월 현재)

술의 개발 발전 노력으로 사료효율 1.5는 이미 달성하기 시작되었다. 전국의 성적을 대표할 값을 찾기 어려워 카길애그리퓨리나의 브로넷 사업부의 성적을 활용했다. 다만 그 추세를 감안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의 육계 생산성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지난 9년 동안의 사료효율의 급진적인 발전은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2011년은 사상 최고의 생산성 지표를 보이고 있다. 2003년과 2005년은 비슷하게 연평균 PI 243, 242에서 2007년 284, 2009년 299, 그리고 2011년 연평균 PI는 305로 예상된다.

드디어 연평균 PI 300 돌파 시대의 신기록이 달성되었던 한 해가 되었다. 즉, 9년 동안 PI 62를 개선하여 매년 7에 가까운 생산성 향상의 눈부신 발전을 해 오신 육계인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물론 전국의 절대 지수는 아니지만 발전의 속도나 흐름은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기쁜 마음으로 2011년의 최고의 생산성 신기록은 육계산업과 육계사료의 최고의 합작품이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 2. 2011 사료 생산량 추이

총 사료생산량은 9월까지 12,286,383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하여 4.6%가 줄었으나 양계사료는 3,571,266톤으로 2.5% 증가한 추세로 진행 중이다.

내년도 병아리 생산량의 척도가 되는 육용종계 사료량은 208,687톤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0.5% 증가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육계인들 모두의 AI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년도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이 없는 한 내년도의 육계 생산량은 금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경기의 흐름이나 계절적 요인, 내년의 총선과 대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FMD와 AI의 철저한 예방이 될 것이다.

## 3. 원료 시장 동향

이에 소요된 각 원료들의 사정을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옥수수는 작년 10월 220USD대에서 현재 330USD대로 무려 100원 이상의 급등으로 지난 전반기 사료가

〈표 2〉 2011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구분	양계	양돈	축우	기타	계	육용종계	육계
2011년 1~9월	3,571,266	3,222,546	4,469,188	1,023,383	12,286,383	208,687	1,606,652
2010년 1~9월	3,485,221	4,019,163	4,405,683	944,299	12,854,366	207,562	1,541,449
전년동월대비	102.5%	80.2%	101.4%	108.4%	95.6%	100.5%	104.2%

격 인상을 통하여 육계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으나 현 옥수수 가격은 내년 초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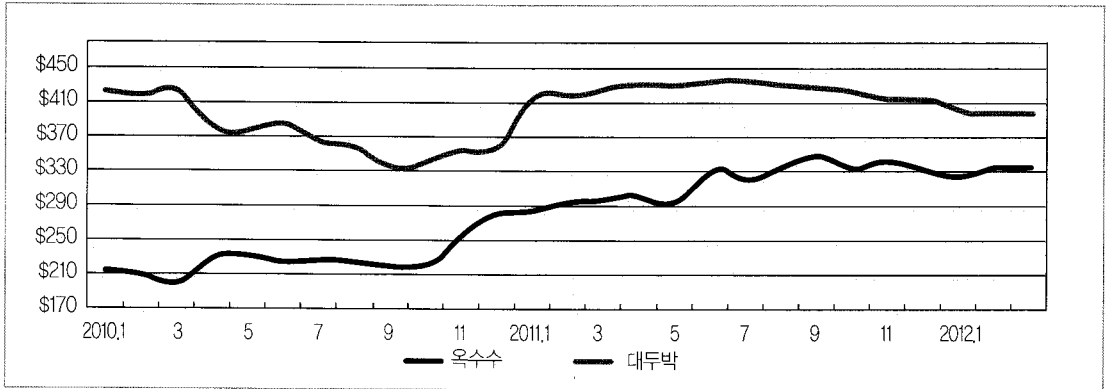
대두박 또한 330USD대에서 100USD 이상 상승하여 현재 420~430USD을 유지하다가 내년 초 약 보합세를 보일 것 같다. 내년 초 가격 변동 이후에는 당분간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불황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위기로 몰렸고 이후에도 스페인과 프랑스까지 어려워질 전망으로 세계적인 불황이 예상되는 작금의 상황으로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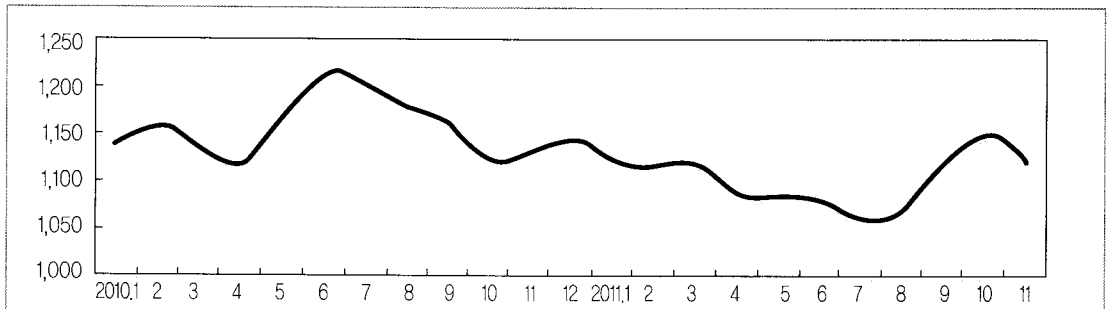
때, 원료 시장과 해상 운임은 수요의 감소로 안정될 조짐이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환율의 변동이 큰 변수로 남아 있다. 환율 100원의 변동은 사료가격 30~40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이미 7월 USD당 1,058 원에 비해 10월 1,151원, 11월 1,120원으로 60원~100원 정도의 증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료회사들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운임은 현재 \$50~55(US Gulf), \$25~30(US PNW)를 유지하고 있다.

〈표 3〉 2011년 옥수수, 대두박 가격 흐름



〈표 4〉 환율 추이



#### 4. 사료생산량과 육계시세의 변화에 따른 관계 분석

최근 3년 동안 육계가격의 변화를 보면 FMD의 여파로 인해 소비자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서 닭고기로 급선회하였다. 물론 AI로 인한 피해도 일부 있었지만 업체들의 신속한 선 조치로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살 처분을 집행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금년 2월~4월 3개월간 육계가격은 평균 2,400원 대를 유지했기에 육계 사업은 오랜만에 호황을 맞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말부터 옥수수, 대두박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금년 봄 사료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 <표 5>에서 보듯이 5월부터 공급량 증가와 수요의 감소로 농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어 생산자와 사료회사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러 있다.

대형 인티 업체들도 여름을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출하시키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매년 비슷하게 겪는 일이지만 알면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표 5>에서는 육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요인들의 데이터를 연도별, 월별로 한

눈에 비교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해 보았다.

육계사업은 계절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고 순간적인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어떤 유의성을 가지고 매 계군별, 월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5. 육계 산업의 변화와 성장으로 세계를 향한 원년

금년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개방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중국과도 FTA가 이루어 질 것이다. 신규 참여하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육계 계열업체들의 경쟁적 규모 확대가 심화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전체의 육계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까 염려도 된다.

닭고기 수출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된다. 한국의 소비 패턴의 특수성 중 하나인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국산 계육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신선한 국산 계육의 맛을 찾아 주시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경쟁으로는 어렵다. 국제 경쟁력을 탄탄하게 갖추어야 할 비상 시국이 도래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사료 부문의 결산을 해 보면서 느낀 올해의 소감을 강조해 본다.

(표 5) 종계 입식 수수와 육계사료 생산량에 따른 육계가격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Total	AVE
총계	2009	322	534	574	547	434	339	572	660	592	591	415	283	5,862	488
	2010	335	555	687	645	505	401	578	831	714	607	462	344	6,664	555
	2011	208	431	720	728	680	463	553	726	780	605			5,894	589
육용	2009	633	720	720	720	820	820	530	576	658	720	820	820	8,556	713
	2010	820	820	820	800	520	695	653	431	698	720	720	497	8,194	683
	2011	320	820	820	820	420	320	320	470	820	820			5,950	595
병아리	2009	322	534	574	547	434	339	572	660	592	591	415	283	5,862	488
	2010	335	555	687	645	505	401	578	831	714	607	462	344	6,664	555
	2011	208	431	720	728	680	463	553	726	780	605			5,894	589
육용	2009	633	720	720	720	820	820	530	576	658	720	820	820	8,556	713
	2010	820	820	820	800	520	695	653	431	698	720	720	497	8,194	683
	2011	320	820	820	820	420	320	320	470	820	820			5,950	595
육계	2009	70,253	67,209	83,553	95,752	104,891	125,942	116,160	87,522	76,438	71,992	75,797	81,952	1,057,461	88,122
	2010	74,286	71,739	92,191	103,933	113,136	122,451	114,341	81,767	76,141	80,493	87,257	88,312	1,106,047	92,171
	2011	76,858	65,404	86,585	102,720	124,048	129,651	110,091	85,733	75,600				856,690	95,188
육계	2009	56,524	56,009	64,835	70,979	80,216	95,436	92,257	78,239	68,884	63,816	62,981	65,690	855,866	71,322
	2010	60,247	59,738	70,376	79,455	86,393	90,719	96,270	77,463	70,803	70,904	78,801	85,832	927,001	77,250
	2011	72,987	58,305	67,416	81,918	98,507	106,093	98,835	87,119	78,791				749,971	83,330
육계	2009	126,777	123,218	148,388	166,731	185,107	221,378	208,417	165,761	145,322	135,808	138,778	147,642	1,913,327	159,444
	2010	134,533	131,477	162,567	183,388	199,529	213,170	210,611	159,230	146,944	151,397	166,058	174,144	2,033,048	169,421
	2011	149,845	123,709	154,001	184,638	222,555	235,744	208,926	172,852	154,391				1,606,661	178,518
육계	2009	2,276	1,912	1,973	1,973	2,087	1,908	2,125	1,699	1,411	1,754	2,062	2,119	23,299	1,942
	2010	2,395	2,117	2,448	2,102	1,654	2,021	2,006	1,767	1,634	1,717	1,537	1,544	22,942	1,912
	2011	1,966	2,260	2,534	2,393	1,523	1,444	1,944	1,884	1,623	1,923			19,494	1,949



2011년은 드디어 연평균 PI 300 돌파 시대의 신기록이 달성되었던 한 해가 되었다. 즉, 9년 동안 PI 62를 개선하여 매년 7에 가까운 생산성 향상의 눈부신 발전을 해 오신 육계인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물론 전국의 절대 지수는 아니지만 발전의 속도나 흐름은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기쁜 마음으로 2011년의 최고의 생산성 신기록은 육계산업과 육계사료의 최고의 합작품이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 ① 사료효율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지수 (PI) 300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 ② 철저한 방역관리와 내·외부 항병력 증대로 질병을 예방하고 AI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 ③ 미국과의 FTA 시국에서 차별화된 사료와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닭고기를 생산해야 한다.

고 맛있는 화이트 미트(White meat)를 공급하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닭고기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살리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가장 강하고 장수하는 국가는 제조업이 살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작금의 EU 위기국가들을 보면 제조업이 사멸되어 가는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육계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건강하